

새해 새 설계

임효섭 보해 회장

“지역민과 교감하는 기업 만들것”

“현재의 보해가 있기까지는 지역민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보해는 지금까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지역민들과 함께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임효섭 보해 회장은 지난 10일 광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교감을 통한 성장을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보해 회장으로 취임한 임 회장은 43년간 보해와 함께 외길을 걸어오며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 왔다. 그는 순천, 광주지역의 영업지점장 사들, 경기 지역영업본부장 등 전국을 돌며, 보해의 성장을 이끌었다. 이어 보해산업 대표이사 사장, 창해에탄을 대표이사 사장 등을 지낸 보해 역사의 산증인인 셈이다.

투명경영 위한 장치 마련
장인정신 깃든 제품 개발
장학사업·나눔행사 확대

임 회장은 “보해는 지난 63년간 다양한 지역사회공헌활동과 장학 사업을 통해 지역민의 기쁨과 슬픔 등 삶의 애환을 함께 해왔다”며 “지역민과 함께 해온 63년이란 시간은 보해의 소중한 자산이며, 보물입니다.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올해는 좋은 기업을 넘어선 기쁨과 감동을 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임 회장은 세가지지를 강조했다. 우선 정직한 경영활동을 통한 신뢰받는 기업을 만드는 것. 투명경영을 위한 내·외적 장치를 통해 전 임직원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둘째 장인정신이 깃든 제품을 만들기 위해 보해 R&D의 기술력과 열정을 통해 소비자가 기술이 한 잔의 술에 정성을 다할 생각

이다. 보해의 핵심 역량으로 잘 알려진 ‘보해종합기술원’은 제품별로 각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제품개발에 힘쓰고 있어 보해의 술은 소박하지만 어떤 사람과 어떤 자리에서 나누어도 손색이 없는 명품주로 탄생하고 있다.

세 번째는 지역민들로부터 ‘참관심 기업’으로 인식되는 것. 임 회장은 “보해는 항상 지역사회의 일원임을 기억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자선봉사, 장학사업, 환경정화활동, 지역축제 지원 등 아름다운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는 내년 호남고속철

도(KTX) 개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하계UN대회 등 문화관광 인프라 및 컨텐츠가 확충되고 있으며, 2014 안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세계인권도시포럼 등 광주, 전남지역에서 매월 굿즈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보해는 각종 행사와 연계해 보해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해는 창립 이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보해 장학회는 지난 1981년 설립해 2013년까지 32년 동안 약 3500명에 총 33억4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환경이 어려운 의식업협회원 자녀 장학금 6억원을, 지역 청소년 선도를 위해 5억 2000만원 등을 지원하며,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2006년에는 보해 임직원과 대학생으로 구성된 ‘젊은이세 사랑나눔 봉사단’을 창단해 2014년 현재까지 광주, 목포, 순천, 전주, 서울 등 전국에서 해당지역의 소외 이웃에게 약 550여회의 나눔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로 2010년 7월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주최한 ‘제17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에서 우수상을 수상, 2011년 전국자원봉사대축제 보건복지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임 회장은 “지속적인 사회공헌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 “변화된 트렌드에 맞춰 나눔의 참 의미를 알리는 다양한 문화행사 등으로 저변을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고 밝혔다.

특히, 광주는 내년 호남고속철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채소가격 하락 속 오이만 ‘나홀로’ 20% 올라

배추 38%·무 40%·양배추 53%·시금치 48% 떨어져

배추·무 등 주요 채소 대부분이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오이 가격만 2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12일 발표한 ‘주요 농축산물 소비자가격 동향’에 따르면 10월 기준 오이 가격은 10개당 9335원으로 전년(과거 5개년 평균) 1월 초순 가격보다 24.9% 올랐다. 지난해 1월 초순(9008원/10개)과

비교해도 3.6%가량 가격이 뛰었다.

농식품부 자료에 포함된 주요 채소·과일 19개 품목 중 평년과 지난해 1월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은 오이뿐이다.

배추 가격은 지난해보다 38.9%, 평년보다는 6.9% 하락했으며 무 가격은 지난해보다 40.3%, 평년보다는 21.7% 하락했다. 양배추 가격과 시금치 가격도 지난해보다 각각 53.4%,

48% 떨어졌다. 이처럼 주요 채소 가격이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폭락한 가운데 오이 가격은 제자리를 지킨 것은 오이가 대표적인 시설재배 채소이기 때문이다.

재작년 채소 가격이 오르자 농가들은 지난해 배추·무 등 노지재배 채소의 경작 면적을 크게 늘렸으나 시설재배 채소인 오이의 경작 면적은 큰 변동이 없었다.

그 결과 배추·무 등은 올해 생산량이 크게 늘어 가격이 내려간 반면, 오

이는 생산량에 큰 차이가 없어 가격이 유지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노지채소는 기상여건과 경작면적 등에 따라 매년 가격 변동이 심한 측면이 있다”며 “시설재배 채소는 시설비를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비교적 가격이 안정적인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대과 수확 지원활동

전남농협(본부장 박중수)은 지난 10일 임직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안군 임자면 거울대과 수확현장에서 현장지원활동을 펼치고, 2014년도 농축산물 공동판매 3조6000억원 달성 등 새해사업 목표 실천을 다짐했다. <전남농협 제공>

주간 증시 포커스

뚜렷한 매수세력 없어 변동성 장세 지속

코스피지수가 지난주말 1938포인트로 마감하며 3.6% 하락했다. 코스피지수의 급락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8조3000억으로 시장의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둘째 연화약세 우려, 셋째 미국 중앙은행의 테이퍼링 실시, 넷째 12월 중국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 부진, 다섯째 글로벌투자은행 HSBC가 한국에 대한 투자등급을 매수에 중립으로 하향 등이라 할 수 있다. 최근의 하락원인은 지난해 6월 중 코스피 지수가 2001포인트에서 1770포인트까지 231포인트(-11.5%) 급락했던 시기의 하락원인과 매우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최근시장이 지난해 6월과 하락이유는 유사하지만 글로벌증시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선진증시와 이머징증시가 동반 하락세를 보였고 이머징국가의 통화도 크게 급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에는 동반 급락세를 보였던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증시와 선진증시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1950선이하로 하락하며 시장이 과매도 영역에 있는 만큼 지수가 기계적인 반등을 시도하려

라도 뚜렷한 매수세력이 없어 수급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다. 당분간 코스피지수는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외국인이나 선물이나 현물에서 강한 순매수로 전환하기 전에는 변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지수의 약세에도 코스닥지수는 지난해 말 499포인트로 마감했지만 새해들어 500선을 회복하고 510포인트를 기록하며 2.2% 상승을 보였다. 삼성전자 모멘텀 둔화는 우량 중소형주에는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삼성전자와 중소형주 간에는 대체효

과가 발견되는데, 삼성전자의 모멘텀 둔화되는 시기에는 우량 중소형주 LED 관련주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다. 삼성전자 투자확대 수혜주 및 상대적으로 업황 전망이 양호한 유기발광다이오드(LED)관련주와 대통령신년기자회견에서 거론되었던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관련주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 조정장세에서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이 유리해 보인다.



정계두 <유진투자증권 광주부지점장>

전남우정청, 설맞이 우체국쇼핑 최대 20% 할인

우체국쇼핑이 설을 맞아 할인 대안치를 연다. 전남지방우정청(청장 김병수)은 오는 22일까지 ‘우체국쇼핑 설 할인 대안치’를 마련해 남도지역 상품 1800여종을 비롯해 전국 팔도특산물 6400여종을 최대 20%까지 할인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체국쇼핑은 국산 농수축산물·전

통주·수공예품 등을 취급하는 직거래장터로 우체국,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 우체국쇼핑몰(mall.e-post.kr), 스마트폰117 앱을 통해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우체국 쇼핑 설 할인대안치에서는 온누리상품권으로도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 응모 및 추첨을 통해 스마트TV, 태블릿 PC, 한우세트 등을 주는 경품 이벤트도 벌인다. <최재호기자 jwpark@kwangju.co.kr>

원장이 직접 챙기는 기숙학원 - 서울케이스사관학원
원장이 직접 챙기는 기숙학원 - 서울케이스사관학원
내 자식처럼 제가 직접 책임집니다.
합격생들이 서울케이스사관을 말합니다.
원장님께서 세 성적은 물론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3주 전에 과목별 출제 예상 내용을 원장시간에 말씀하셨는데, 그 적중도에 놀랐고, 특히 언어 지문 예언에 저는 정말 탄복하고 감격하였습니다.
원장과 모든 학과 선생님이 학생과 함께 숙식하면서 목표를 쟁취하도록 합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공부하는 방법, 요령, 공부하는 습관을 터득하도록 합니다.”
서울대 고대 연대 의치계열 교대사관학교
원장, 그리고 학과 선생님과 학생이 24시간 함께 합니다!!!
토·일요일, 국경일, 추석연휴에도 정상 수업!!!
성공! 오직 공부만! 연간 휴가 단, 9박 10일!!!
국어는 국어만으로, 수학은 수학만으로, 영어는 영어만으로 각 과목별 수준 반편성 실시!!!
재도전! 조기 특강반
개강! 2014년 1월 19일(일), 2014년 2월 2일(일)
대상! 서울대, 고대, 연대, 의치계열, 교대, 사관학교 지원 예정자
상담! 상담실(055.585.5003) www.scoa.co.kr
※ 원장과 학과선생님들이 학생과 함께 기숙합니다!